

“도움 절실한 이웃에 먼저 다가가겠다”

허영호 12대 전남 사랑의열매 회장 취임

“함께 걸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널리 확산하겠습니다.”

허영호(69·사진) 제12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열매) 신입 회장은 16일 열린 이·취임식에서 “전남 사랑의열매가 돌봄 이웃뿐 아니라 모든 도민이 함께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구제길 광주 사랑의열매 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나눔장·감사패 전달, 이임사, 신입 회장 임명장 수여·취임사,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허 회장 취임의 임기는 17일부터 3년이다.

허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인의 영광이 아닌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임기 3년...지역 공동체 성장 주력

생활 속 나눔문화·민관 협력 확대

현장 의견 반영 지원사업 강화도

이고자 한다”며 “전남이 나눔과 사랑이 일상이 되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 ▲전남도·도교육청·전남경찰청 등 민·관 협력모델 확대 ▲복지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지원사업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허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남 지역은 희망나눔캠페인 목표액의 126.8%를 달성했는데, 이는 노동일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도민들의 뜨거운 참여와 진심 어린 나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같은 긍지와 자부



심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허영호 회장은 2001년부터 미림산업개발주와 민은산업개발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광주북구협의회 지회장, 담양군장학회 이사, 전남신용보증재단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발전과 국민소통 증진에 힘써 왔다.

또한 2014년 전남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패밀리 아너에 가입하고 2021년부터는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대표로 활동하며 신규 회원 확충과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노동일 제11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전남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남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에 더 큰 사랑과 나눔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주성학기자



전국교원양성대 총장協 “초등교사 감축 중단해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초등교사 정원 감축 중단과 교원 확충을 촉구했다.

16일 광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전남 협의회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AI 시대 교육환경에 맞는 초등교사 정원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학교 현장은 학습 부진, 정서·행동 문제, 다문화·특수교육 등 복합적 과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조치”라며 “초등교사 임용 규모 확대를 통한 교원 증원과 교육의

질 제고가 시급한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에는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심리지원, 특수·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확충이 명시돼 있다”며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과제에서도 초등교사의 전문성 신화와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승준 광주교육대 총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전문교사를 확충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기일수록 초등교원 확대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향상의 길”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신안천일염, ‘썸썸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동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16일 “신안천일염(주)이 대한적십자사의 대표 나눔 캠페인 ‘썸썸이가 바른기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썸썸이가 바른기업’은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매월 20만원 이상을 정기 후원하는 기업 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성재 신안천일염 대표는 “평소 사회공헌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만큼 이번 참여가 이를 실천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주성학기자

목포해경, 해양재난구조대 하반기 순회교육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역관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양사고 상황별 대응요령 ▲선내 탈출 시 비상 대응 절차 ▲구명함·구명뗏목 투하 등 구조장비 운용법 ▲가을철 해상기상 악화 및 조류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와 안전수칙 등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사고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민간 협력 세력”이라며 “정기적인 교육과 합동훈련을 통해 실질



적인 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영산강 축제 무대 ‘호응’

동신대학교는 “‘2025 나주시 영산강 축제’ 폐막식에서 공연예술무용학과 학생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재학생과 비상무용단 무용수 등 120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창작무용 ‘청명(淸明): K-풍류 나주의 전설’이 공연됐다. 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스트리트댄스가 어우러진 융합 무대로 나주의 전통과 현대 예술을 재해석했다.

비상무용단은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진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 ‘2025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품 ‘청명’을 제작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부는 ‘아름다운 나주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여정’을 주제로 청춘의 열정과 희망을 담은 무대로 꾸며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박종임 학과장은 “학생들과 비상무용단이 큰 무대에서 갈고닦은 역량을 발휘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창의적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전남도, ‘대한민국 SNS 대상’ 광역자치단체 최우수상

전남도가 국내 최고 권위의 SNS 시상식인 ‘2025 대한민국 SNS 대상(KOREA SNS AWARD)’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SNS 대상은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용 현황을 종합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13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정량평가(30%), 심사위원 평가(40%), 전문가 평가(20%), 일반인 투표(10%)를 종합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소셜이어워드 2025’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 유튜브·인스타그램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을 받아 국내 양대 SNS 어워드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쉬우면서도



재미와 트렌디함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를 제작, ‘전남도 유튜브’를 중심으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7종의 SNS 매체를 운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규웅 전남도 대변인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다”며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서부경찰, 서창역새축제서 ‘성범죄 예방’ 캠페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제10회 서창역새축제’ 현장에서 서구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마약류 이용 등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잇따른 마약류 이용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마약을 매개로 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인 축제장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 점검도 병행했다. 또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 홍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최종배 조선대 작업치료학과 교수팀 “전기자극치료·씹기운동 구강건강 ↑”



최종배(사진)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연구팀이 전기자극치료와 씹기운동을 병행하면 노인의 삼킴 능력과 구강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구강재활학 저널 Journal of Oral Rehabilitation(2025년 9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씹기 운동만 시행한 그룹과 저작근(씹는 근육)에 전기자극치료를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다.

4주간의 실험 결과, 전기자극을 병행한 그룹은 씹는 힘, 저작근 두께, 구강 점막 수분도가 모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전기자극이 근육 활성화를 촉진해 저작근 강화와 침샘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치료법은 복지시설이나 가정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한 고령층 맞춤형 재활치료법으로, 노인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배 교수는 “전기자극치료와 씹기운동의 병행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재활치료법”이라며 “노인의 안전한 식사와 구강 건강을 돕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지역문화 구심점...전통 계승 큰 역할”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 ‘성료’

전남도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 문화의 미래를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문화원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대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노관규 순천시장,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김대진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김봉수 전남문화원연합회장, 전남 21개 지방문화원장 및 임직원 등 문화원 가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남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행사에선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순천문화원과 지극한 효성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된 장항선 구례문화원 회원 등 4명에게 전남지사 표창장 수여됐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을 지키고 가꾸는 지방 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지역 향토문화의 버팀목이자 K-컬처의 든든한 토대가 돼주고 있는 문화원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등문·등창회

●광주대등고총동창회(회장 양승환) 제23회 한마당축제=26일(일) 오전 9시 광주 서구 매월동 모교 운동장.

결혼

▲김병인·이윤경씨 차남 성록군, 김양민·김용애씨 장녀 수아양=18일(토) 오후 2시30분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